https://doi.org/10.5392/JKCA.2020.20.10.641

금융기관의 공유가치창출(CSV)과 조직민첩성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연구 : 사회적자본 중심으로

A Study on the Impact of Financial Institutions' Creating Shared Value and Organizational Agility on Management Performance : Focusing on Social Capital

김상철, 서영욱
대전대학교 대학원 융합컨설팅학과

Sang-Chul Kim(chul33@hanmail.net), Young-Wook Seo(ywseo@dju.kr)

요약

금융기관 종사자 대상 연구에서 공유가치창출(CSV)과 조직민첩성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미비한 상황이다. 본 연구는 금융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CSV가 사회적자본을 통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과 조직민첩성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데 목적이 있으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적 가치는 구조적자본, 관계적자본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으나, 사회적가치는 관계적자본에만 긍정적 영향을 주었다. 둘째, 조직민첩성은 재무성과, 비재무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다. 셋째, 구조적자본은 비재무성과에만 긍정적 영향을 주었으며, 관계적자본은 재무성과, 비재무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다. 이런 연구결과를 종합해 볼 때, 대부분의 변수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사회적가치는 구조적자본에 구조적자본은 재무성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금융기관의 경영성과를 높이기 위해 사회적가치와 구조적자본 강화의 필요성을 제안하였으며, 결론 및 시사점과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하였다.

■ 중심어 : | 공유가치창출 | 조직민첩성 | 사회적자본 | 경영성과 | 금융기관 |

Abstract

Research on the impact of the creating shared value (CSV) and organizational agility on management performance in research targeting financial institution workers is insufficien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CSV on business performance through social capital and the effect of organizational agility on business performance for employees of financial institutions.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economic value had a positive effect on structural and relational capital, but social value had a positive effect on relational capital only. Second, organizational agility had a positive effect on financial and non-financial performance. Third, structural capital had a positive effect only on non-financial performance, and relational capital had a positive effect on financial and non-financial performance. In summarizing these findings, it was confirmed that although most of the variables had a positive effect, social value did not affect structural capital and structural capital did not affect financial performance. Based on such research results, the necessity of strengthening social value and structural capital was proposed to increase the management performance of financial institutions, and conclusions, implications, and future research directions were presented.

■ keyword : | Creating Shared Value | Organizational Agility | Social Capital | Management Performance | Financial institution |

접수일자 : 2020년 09월 16일
수정일자 : 2020년 10월 06일
심사완료일 : 2020년 10월 06일
교신저자 : 서영욱, e-mail : ywseo@dju.kr

I. 서 론

Porter&Kramer[1]에 의해 제안된 개념인 공유가치 창출(Creating Shared Value : CSV)은 기업활동에 있어서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면서 '사회적가치'도 동시에 창출하기 위한 개념으로써 이 개념이 등장한 이후 기업의 사회적 역할이 강조되어 오고 있다. 금융권에서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금융의 역할에 대한 반성 속에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임팩트 금융(Impact Investing), 포용적 금융(Financial Inclusion), 기후금융 등 다양한 형태로 사회적가치 실현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적금융이 등장, 발전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의 사회적 금융은 아직 태동단계에 머물러 있다. 사회적 금융은 중소기업, 서민 등 금융 소외 영역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빈곤, 환경문제, 고령화 등 다양한 환경적, 사회적 문제 해결 지원을 함으로써 사회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금융활동이라는 인식의 폭을 넓혀야 한다[2]. 금융기업을 대상으로 한 연구 중, 사회공헌활동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기업의 회계정보의 유용성이 그렇지 않은 금융기업에 비해 높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기도 하였다[3]. 그럼에도, 금융기관의 공유가치창출에 관한 연구는 아직 미흡한 상황이다[4].

한편, 금융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기술의 발달에 따라 발전해 왔다. 19세기 후반 증기선, 철도, 전신 등의 기술 발전은 금융의 국제화를 이끌었고[5], 1960년대에 등장한 현금자동입출금기(Automatic Teller's Machine: ATM)를 통해 무인서비스가 시작되었다. 20세기 말 인터넷 기술 발전은 모든 금융분야(은행,보험, 증권 등)에서 물리적 접촉 없이 비대면 금융거래가 가능하도록 만들었다[6]. 그리고 현재에도 금융은 핀테크(Fintech) 기술을 활용하여 개인금융, 대출, 투자, 데이터분석, 블록체인 및 비트코인, 인터넷전문은행 등 다양한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으며[7], 금융은 계속해서 기술의 진보와 함께 발전·변화할 것이다. 이런 흐름에 민첩하게 적응하지 못하는 금융기관은 도태되어 버릴 수밖에 없다. Ramasesh et al.[8]은 이런 민첩성을 환경의 변화를 신속하게 인지하고 적시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능력이라 정의하면서 민첩성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와 같은 이유로 금융기관의 조직민첩성이 경영성과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연구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금융기관의 공유가치창출(CSV)이 사회적자본을 통해 경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둘째, 금융기관의 조직민첩성이 경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지도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런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요인별 측정항목을 도출, 연구모형 개발 및 조사를 통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공유가치창출

Porter&Kramer[1]는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을 기업의 전략적 개념으로 발전시킨 CSV(Creating Shared Value)를 제시하였는데, CSV란 기업이 직면한 도전에 전략적인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써, 사회적 가치 창출은 물론, 경제적 가치도 함께 창출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이는 기업의 수익창출 목표를 먼저 달성한 후에 사회공헌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 활동을 진행하는 그 자체가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말해, 사회적·경제적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방향으로 기업 활동이 이루어지며, 사업의 핵심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총체적인 기업정책 및 경영활동을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9].

이러한 CSV는 사회의 발전과 동시에 기업의 발전을 전제로, 사회가 발전하고 나면 다시 기업의 발전으로 돌아오는 선순환 구조를 이루고 있으며, 사회와 기업의 상호 발전을 도모하는 가치를 말한다. 따라서 CSV는 경제적, 사회적 가치를 개선시켜 주어 핵심 경쟁력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기업측면에서 보면, 기업의 정책과 경영 활동의 혁신을 수반하는 활동이라 할 수 있다[10][11][12].

CSV는 CSR 이론을 비판하면서 출발하여 CSR의 대안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상호 비교를 통한 이해가 필요하다[13].

CSV와 CSR를 비교 하면 [표 1]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CSR과 CSV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기업 비즈니스와의 연계 여부라고 할 수 있으며[14], CSR보다 CSV가 훨씬 더 기업 친화적이다[15][16].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CSV를 통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Porter & Kramer[1]는 CSV에 대하여 두 가지 핵심적인 내용을 강조하였는데, 첫째는 기업의 경쟁력을 증대시켜야 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기업이 속해있는 커뮤니티의 사회적 조건들을 증대시켜야 한다는 것이다[17].

표 1. CSR 과 CSV 비교

항목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	CSV(공유가치창출)
가치	도움이 되는 일, 선행	투입비용 대비 경제적, 사회적 편익
핵심 개념	시민정신, 자선활동, 지속가능성	기업과 지역공동체의 공동의 가치 창출
동기	자의적 또는 외부압력에 반응하는	경쟁에 필수적인
인식	이익극대화와 별개로 인식	이익극대화에 필수적
의제	외부 보고 및 개인 선호에 따라 결정	기업별로 다르며 내부적 생성
예산	기업 활동 및 예산(CSR)에 의해 제한	전체 기업 예산 재조정
사례	공정거래 구매	품질과 생산량을 높이기위한 조달 혁신

출처 : Porter and Kramer, "The Big Idea: Creating Shared Value. How to reinvent capitalism—and unleash a wave of innovation and growth," Harvard Business Review, Vol.89, No.1-2, 2011.

이런 연구들을 기반으로 이두희 등[18]은 지역산업의 지속가능한 경쟁력 강화 방안 연구에서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로 CSV 요인을 구분하였으며, 문신희[19]는 CSV 전략은 기업의 추구하는 경제적 성과 뿐만 아니라, 기업 이해 당사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사회적 성과도 창출할 수 있도록 전략적인 관점에서 기업 활동을 수행하는 것이라 하였다. 또한, 박노윤, 김종배[20]는 이해 관계자의 범위가 넓어지고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고려하는 차원의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금융기관의 CSV 활동에 대한 요인을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로 분류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2. 조직민첩성

조직민첩성은 동적역량, 전략적유연성, 흡수역량, 시장중심(market orientation)과 개념상 유사점을 보이나, 적용범위와 구성요소에 있어서는 차이를 보인다[21].

Goldman et al.[22]은 조직민첩성을 기업이 예측불가능한 환경의 지속적인 변화에서 생존하는 능력으로 정의 하였으며, Sharifi&Zhang[23]은 유사한 개념으로, 조직민첩성을 예기치 못한 변화에 대응하고 변화를 오히려 기회로 활용하는 능력이라 정의하면서, 네가지 구성요소로서 반응성, 유연성, 역량, 속도를 이야기하였다. Dove[24]와 Kidd[25]는 예측하지 못한 변화와 예측한 변화에 적절한 대응으로 변화를 기회로 활용하는 능력으로 보았으며, Ramasesh et al.[8]은 조직민첩성을 시장의 빠른 변화상황에서 고객 중심의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업의 자원을 재구성이나 실전 학습 등을 통해 유연성, 스피드, 혁신, 품질, 수익성을 달성하는 능력이라 정의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종합해 볼 때 조직민첩성은 예측 불가능한 기업 내·외부의 변화를 감지하고 극복하는 역량이라는 점이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Overby et al.[26]과 Sambamurthy et al.[27]의 정의를 바탕으로 금융기관의 조직민첩성을 기업이 처한 위기와 기회를 파악하고 필요한 가용자원을 민첩하게 투입하여 대응하는 능력으로 정의한다.

3. 사회적자본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은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연구에서 도시의 생존과 기능을 위한 네트워크의 필요를 강조하며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동일 커뮤니티 안의 개인들 사이에서 발전되어온 협력, 신뢰, 집단적 행동을 근간으로 한다[28].

또한, 지리적 지역(region) 커뮤니티에 초점을 맞춰 연구한 Putnam[29]의 정의에 따르면, 사회적 자본을 상호 이익의 실현을 위한 조정과 협력 과정에서 발생하는 네트워크, 사회적 신뢰, 규범 등의 사회 조직적 특징이라 하였으며, 국가조직 차원의 사회적 자본을 연구한 Fukuyama[30]는 집단과 조직 간의 공통된 목적 달성을 위해 함께 협업하는 사람들의 능력으로 사회적 자본을 정의하였다[31].

반면에, Nahapiet&Ghoshal[28]은 사회적 자본의 하위개념으로 Structural Capital(구조적 자본), Relational Capital(관계적 자본), Cognitive Capital(인지적 자본) 으로 구분하였는데, 이것은 사회적 자본이 조직의 가치 창출을 촉진하는 방법에 대한 이론적인 틀을 제시한 것이다[32].

이것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구조적 자본은 구성원들간의 관계 형태를 설명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사회적 체계 및 네트워크의 전체 특성에 관한 것이며, 행위자가 누구에게 어떻게 연결되는지와 같은 네트워크 유대와 네트워크 구성을 중심으로 설명한다[28]. 둘째, 관계적 자본은 개인적인 관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우정, 존중, 신뢰 등 관계에서 사람들의 행동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사회적 자본이다[28]. 관계적 자본은 반복적인 상호작용의 결과로써 발전되는데, 특히 신뢰는 다수의 연구에서 관계적 자본의 핵심적인 요소로 다루어지고 있다[33-35]. 셋째, 인지적 자본은 구성원들 간에 공유된 표현이나 해석 및 의미체계를 전달하는 자원을 뜻하며, 이런 자원은 지적 자본으로서 구성원들 간 공유된 언어나 공통된 믿음이나 규범을 포함한다[28][36].

따라서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Nahapiet&Ghoshal[28]이 제시한 사회적 자본의 내용 중 구조적 자본과 관계적 자본의 내용을 사회적 자본으로 정의하고 측정항목을 구성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4. 경영성과

경영성과란 기업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내부의 보유한 역량과 자원을 총동원하여 획득한 산출물이나 결과물의 집합'으로 정의된다[37]. 구체적으로 언급하면 '기업 내의 개별 직원 또는 단위 조직에서 설정한 기간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기업 차원의 공동계획을 수립하고 모든 역량과 자원을 동원하여 계획에 따라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결과로 나타나는 산출물들의 집합'으로 설명할 수 있다[38].

이러한, 경영성과는 크게 재무적 성과와 비재무적 성과로 구분 할 수 있다. 재무적 성과는 한 회계 기간 동안에 발생한 기업의 모든 영업 활동의 결과물을 의미한다[39]. 기업 경영활동의 궁극적인 목표 달성은 재무적 성과로 표시되기 때문에, 재무적 성과는 기업의 안정성, 건전성 등 종합적 역량을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 지표라고 할 수 있으며[40], 대부분의 기업들은 자기자본이익률(ROE), 총투자이익률(ROI), 총자산이익률(ROA) 등의 경영성과 지표를 사용한다. 비재무적 성과는 고객만족, 직원 만족, 편익제공 정도, 서비스 향상, 신상품 개발, 제품 차별성 등이 주로 활용되고 있다[41].

기업의 관점에서 경영성과는 기업을 둘러싼 내·외부 환경을 고려하여 기업 가치와 재무성과를 파악하고, 기업이 보유한 유・무형의 자산을 활용한 기업 활동의 결과로 규정 할 수 있으며[42], 재무성과 뿐만 아니라 전략적 성과나 장기적인 비전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43]. 경영성과의 주요한 측정 요인은 거시적으로 재무적 성과와 비재무적 성과로 분류 할 수 있다[44].

Ⅲ. 연구모형 및 연구설계

1. 연구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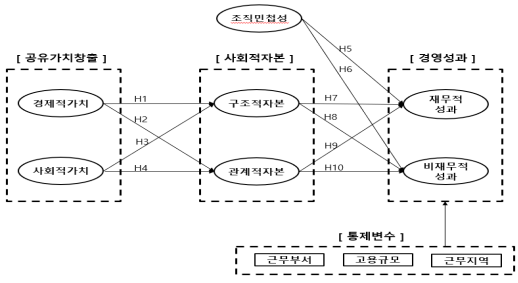

그림 1. 연구 모형

본 연구에서는 금융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공유가치창출과 조직민첩성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사회적자본을 중심으로 알아보고자 하는 연구이며, 변수간의 상호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실증 분석하였다.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으며, 통제변수로는 근무부서, 고용규모, 근무지역이 사용되었다.

2. 연구 가설 도출

2.1 공유가치창출과 사회적자본과의 관계

Sen&Cowley[45]는 호주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사례분석에서 CSR과 사회적 자본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이들의 연구에 따르면, 대기업에 비해 한정된 자원을 가진 중소기업이 CSR을 수행하는 이유는 좋은 기업시민(corporate citizen)으로써 역할을 함으로써 커뮤니티의 지원을 이끌어냄과 동시에 비즈니스 활동 차원의 공공 감시를 줄이는 데 있다. 즉, CSR 활동을 통해 기업은 비즈니스 생태계의 이해관계들과의 관계를 개선하여 사회적 자본을 축적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기업은 자선활동을 통하여 세금감면 혜택을 받고, 지역사회로부터 신뢰도 얻게 된다[46]. 이것은 기업이 사회적 가치를 창출을 통해 지역사회의 사회적 자본을 축적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47].

주재훈 외[47]는 CSR·CSV와 같은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은 비즈니스 생태계 안의 이해관계자들이 그 기업에 대한 인식 태도와 신뢰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며, 기업은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을 통해 관계적 자본을 형성할 수 있다고 하였다.

윤태환[48]은 MICE[1] 산업의 핵심인프라 중 하나인 전시컨벤션센터 경영전략에 경제적가치와 사회적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면서 지역사회와 상생·협력을 위해 공유가치창출(CSV)을 적용하였고, 이를 통해 MICE 산업 내부의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인 규범, 신뢰와 같은 무형자산을 형성할 수 있었으며, 산업 내부 구성원들 사이의 네트워크 상호작용을 강화시켜 공동의 목표라 할 수 있는 지역 MICE산업 발전이라는 목표달성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검증하였다.

CSV의 효과에 대한 실증분석 선행 연구는 제한적이지만, Porter&Kramer[49]의 연구에서 다이아몬드(diamond framework) 모델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지역의 이해 관계자들과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클러스터 형성은 CSV를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이런 주장은 CSV의 성공적인 수행은 산업 내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의 협력과 상호작용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는 Social Capital(사회적 자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1) MICE는 Meeting(기업회의), Incentive tour(인센티브 관광), Convention(국제회의), Exhibition(전시)를 의미하는 영어 단어에서 첫머리를 딴 것이다.

이런 문헌고찰을 통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1 : 경제적가치는 구조적자본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2 : 경제적가치는 관계적자본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3 : 사회적가치는 구조적자본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4 : 사회적가치는 관계적자본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2 조직민첩성과 경영성과와의 관계

Katayama&Bennett[50]는 일본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갭분석을 통해 민첩성에 중점을 둔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을 구분하여 그룹 간 운영성과를 비교하였는데, 조직민첩성에 중점을 둔 기업이 고정비용, 손익분기점, 가격탄력성 측면에서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경쟁력이 더 있음을 실증적으로 증명하였다[21]. 또한 다른 연구에서도 민첩성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는데, 기업은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에서 다양한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대응하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하였는데[51], 그 이유는 이러한 민첩성은 경쟁우위의 원천으로 작용하며 마케팅 전략을 수행하는데도 중요하기 때문이다[52].

Nastanski[53]는 첨단산업분야의 경영자를 대상으로 델파이 실험을 진행하였는데, 현재의 상황 처럼 산업의 환경변화가 큰 시기에는 변화를 탐색하는 능력이 중요하고 그것을 통해 기업의 성과를 향상 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환경변화에 대하여 탐색하고 반응함으로써 기업은 효율적인 경쟁우위 전략을 수립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우수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51][54].

국내에서도 조직민첩성과 경영성과와의 연구는 활발이 진행되었다. 김정욱 등[55]은 경영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요인으로서 환경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는 정도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용수 등[56] 은 국내 우정사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에서 조직민첩성과 사업성과 간의 관계에 유의미한 영향이 있음을 실증 분석

하였으며, 채주석·김찬중[57]은 국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조직민첩성이 당기순이익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검증하였다.

선행 연구 분석을 통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5 : 조직민첩성은 재무적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6 : 조직민첩성은 비재무적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3 사회적자본과 경영성과와의 관계

Nahapiet&Ghoshal[58]은 사회적자본이 신제품 개발, 기술의 차별화 등을 통해 경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또한, Adler&Kwon[59]은 사회적 자본이 기업가정신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며, 기업가 정신은 경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양현·심상규[60]는 구성원의 신뢰, 네트워크의 밀도, 비전 공유 등은 품질 향상, 매출액 증가 등과 같은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류길호·이선규[61]는 중소기업의 사회적자본인 상호작용과 구성원 신뢰도는 기업의 비재무적 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안성수·김석용[62]의 연구는 공공조직을 대상으로 사회적 자본의 역할을 살펴보았는데, 구조적 자본, 관계적 자본 및 인지적 자본 모두 서비스의 질 향상이라는 조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오재욱[63]은 사회적 자본의 강도가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살펴보았는데 사회적 자본의 강도가 올라갈수록 긍정적인 경영성과가 나타났다. 이준영·한미정[42]은 국내 스타트업 기업을 대상으로 사내커뮤니케이션 요인과 스타트업 구성원이 형성하는 사회적 자본과 경영성과 간의 구조적인 관계를 살펴보았는데, 스타트업의 사회적자본과 경영성과 간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7 : 구조적자본은 재무적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8 : 구조적자본은 비재무적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9 : 관계적자본은 재무적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10 : 관계적자본은 비재무적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변수의 조작적 정의와 설문지 구성

본 연구는 연구 모형의 실증분석을 위해 [표 2]과 같이 측정변수에 대해 조작적 정의를 제시하고,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표 2.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설문지 구성

측정변수	조작적정의	문항	척도	출처
공유 가치 창출	사회와 기업의 상호 발전을 위한 경제적가치와 사회적가치	8	7점 척도	원종하,정대연[12], 문신희,김정희[19], Porter & Kramer[1]
조직 민첩성	기업이 처한 위기와 기회를 파악하고 민첩하게 대응하는 능력	4	7점 척도	Lu & Ramamurthy[64], Tallon&Pinsonneault[65]
사회적 자본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한 구조적 자본과 신뢰를 중심으로 한 관계적 자본	6	7점 척도	박서정 등[31], Garcia-Villaverde et al.[66], Nahapiet&Ghoshal[58], Kale et al.[67]
경영 성과	기업의 재무적 성과와 비재무적 성과	8	7점 척도	서정록 등[68], Kaplan& Norton[69], Govindarajan&Gupta[70]
통제 변수	근무부서,고용규모, 근무지역	3	-	저자 구성

4.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의 가설 검증을 위하여 금융기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실시하였다. 표본 자료는 전국의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온라인 및 오프라인 혼합방식을 사용하여 수집하였다.

설문조사는 2020년 7월 한 달 동안 진행되었으며, 회수된 305부의 설문지 중 응답누락 및 불성실 응답을 제외한 280부를 가지고 통계분석을 수행하였다. 각각의 문항은 리커트 7점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SPSS 25.0을 활용하여 인구통계 항목의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Smart PLS 2.0을 활용하여 구조방정식 통계분석을 실시하여 모형과 가설을 검증하였다.

Ⅳ. 실증분석

1.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분석

응답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성별은 남성 182명, 여성이 98명으로 65%, 35%로 나타났으며, 회사의 근속기간은 3년 미만 45명, 3~5년 미만 45명, 5~10년 미만 51명, 10~15년 미만 62명, 15년 이상 77명으로 15년 이상이 27.5%로 가장 많았으며, 직무 형태는 사무직 217명, IT(전산직) 16명, 영업직 40명, 생산직 4명, 기타 3명으로, 사무직이 77.5%로 가장 많았다. 근무지로는 서울 164명, 경기/인천 43명, 대전/세종/충청 19명, 강원 7명, 경상 25명, 전라/제주 20명, 기타 2명으로 서울에서 근무하는 비중이 58.6%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업종으로는 은행업 58명, 보험업 97명, 증권업 45명, 신용협동조합 30명, 여신전문업 22명, 금융보조기관 28명으로 보험업이 34.6%로 가장 많았다.

2. 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

설문항목들을 분석해 보면 [표 3]와 같이, 변수들의 신뢰도는 Chronbach's α값이 0.871에서 0.937로 모두 0.7이상으로 충분한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요인적재값이 0.765에서 0.941로 모두 0.7이상이고, 개념신뢰도가 0.913에서 0.955으로 0.7이상이며, 평균분산추출이 0.724에서 0.871로 나타나 모두 0.5이상으로 집중타당성에도 문제가 없다.

표 3. 요인 및 신뢰도 분석 결과

측정 항목명		요인적재치	t-value	Cronbach's α	CR	AVE
경제적 가치	경제가치1	0.858	47.244	0.900	0.930	0.769
	경제가치2	0.889	63.362			
	경제가치3	0.874	49.280			
	경제가치4	0.886	55.710			
사회적 가치	사회가치1	0.882	57.261	0.937	0.955	0.841
	사회가치2	0.924	68.776			
	사회가치3	0.941	121.273			
	사회가치4	0.921	74.096			
조직민첩성	조직민첩1	0.907	69.639	0.928	0.949	0.822
	조직민첩2	0.896	62.107			
	조직민첩3	0.907	52.868			
	조직민첩4	0.916	77.537			
구조적 자본	구조자본1	0.889	60.703	0.875	0.923	0.800
	구조자본2	0.861	28.729			
	구조자본3	0.931	96.580			
관계적 자본	관계자본1	0.936	94.834	0.926	0.953	0.871
	관계자본2	0.941	118.178			
	관계자본3	0.921	80.642			
재무 성과	재무1	0.869	43.701	0.871	0.913	0.724
	재무2	0.910	72.179			
	재무3	0.765	21.927			
	재무4	0.853	32.093			
비재무 성과	비재무1	0.898	69.012	0.908	0.935	0.783
	비재무2	0.873	44.766			
	비재무3	0.888	51.060			
	비재무4	0.880	49.640			

* CR : Composite Reliability

판별타당성 분석은 [표 4]에서와 같이 각 요인의 AVE의 제곱근 값이 상관계수 값들보다 높기 때문에 판별타당성 역시 확보되었다.

표 4. 판별 타당성 분석 결과

측정 개념	1	2	3	4	5	6	7
1 경제적가치	0.877						
2 사회적가치	0.774	0.917					
3 조직민첩성	0.655	0.585	0.907				
4 구조적자본	0.752	0.606	0.667	0.894			
5 관계적자본	0.772	0.640	0.635	0.812	0.933		
6 재무성과	0.515	0.361	0.454	0.479	0.524	0.851	
7 비재무성과	0.679	0.608	0.727	0.693	0.687	0.679	0.885

※ 위 표의 대각선 음영부분은 평균분산추출값(AVE)의 제곱근 값임.

3. 연구가설의 검증

[그림 2]를 살펴보면, 연구가설 검증을 위한 경로 분석과 연구모형의 설명력을 확인할 수 있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구조적자본은 경제적가치와 사회적가치에 의해 56.7%가 설명되고, 관계적자본은 경제적가치와 사회적가치에 의해 60.0%가 설명되며, 재무성과는 조직민첩성과 구조적자본, 관계적자본에 의해 33.1%가 설명되었으며, 비재무성과는 조직민첩성과 구조적자본, 관계적자본에 의해 63.2%가 설명된다.

본 연구가설에 대한 검증결과를 정리하면 [표 5]와 같이 가설 1-2, 4-6, 8-10은 유의하게 지지되어 채택되었으나, 가설 3, 5는 채택되지 못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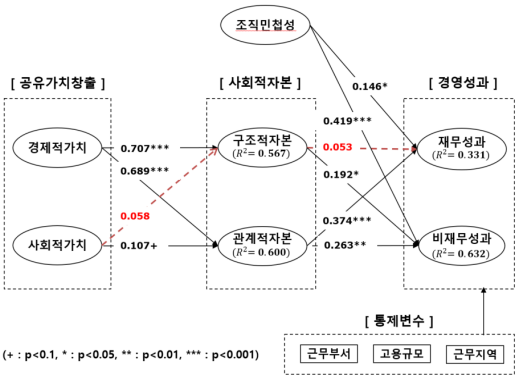

그림 2. 경로 분석 결과

표 5. 가설검증 결과 요약

가설 번호	경로명칭	경로 계수	t-값	검증 결과
H1	경제적가치→구조적자본	0.707	10.620***	채택
H2	경제적가치→관계적자본	0.689	8.650***	채택
H3	사회적가치→구조적자본	0.058	0.874	기각
H4	사회적가치→관계적자본	0.107	1.385+	채택
H5	조직민첩성→재무성과	0.146	2.018*	채택
H6	조직민첩성→비재무성과	0.419	7.234***	채택
H7	구조적자본→재무성과	0.053	0.501	기각
H8	구조적자본→비재무성과	0.192	2.322*	채택
H9	관계적자본→재무성과	0.374	3.569***	채택
H10	관계적자본→비재무성과	0.263	2.925**	채택

주) +p<0.1, *p<0.05, **p<0.01, ***p<0.001

V. 결 론

본 연구는 금융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공유가치창출과 조직민첩성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실증분석을 진행하였다. 특히 사회적 자본을 통해 그 영향 관계를 자세히 알아보았으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설1-4를 통하여 공유가치창출이 사회적자본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공유가치창출의 하위개념인 경제적가치는 사회적자본에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반면에, 사회적가치는 관계적자본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구조적자본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공유가치창출이 사회적자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47][71]는 기존 연구와 대부분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으나, 기업이 사회적 가치창출을 통해 지역사회의 사회적 자본을 축적하게 된다[45]는 기존 연구와는 약간의 차이점이 있는 것으로 금융기관의 사회적가치는 구조적자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둘째, 가설5-6을 통해 조직민첩성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가설 검증 결과 조직민첩성은 경영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직민첩성에 중점을 둔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경쟁력이 더 있음을 증명한 기존 연구결과의 관점을 지지해 준다[21][50][57][72]. 따라서, 금융기관의 조직민첩성도 경영성과에 긍정적이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가설7-10을 통해 사회적자본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사회적자본의 하위개념인 구조적자본은 재무성과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았지만, 비재무성과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관계적 자본은 재무성과와 비재무성과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구성원의 비전 공유, 상호 신뢰, 네트워크의 밀도 등은 품질향상, 매출액 증가 등과 같은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친다는[59][60][63] 기존 연구의 결과와 대부분 일치하는 결과이나, 사회적자본의 관계적차원(구조적자본)은 스타트업의 재무적성과와 비재무적성과에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42]는 연구와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결과라 할 수 있다. 금융기관의 업무 특성상 네트워크 보다는 신용을 기반으로한 업무 프로세스의 준용이 중요하기 때문이라 생각되어지는 결과이다.

이상의 가설 검증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이론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공유가치창출의 하위변수인 사회적가치가 사회적자본의 하위변수인 구조적자본을 통해서는 재무성과와 연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실증연구를 통해 확인하였는데, 이는 기존 연구에서 확인할수 없었던 부분으로 금융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결과라 할수 있다. 따라서 이는 후속연구의 선행연구로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둘째, 공유가치창출과 조직민첩성이라는 독립변수를

경영성과라는 종속변수와 함께 연구하였다는 것이다. 기존 선행연구에서는 공유가치창출-경영성과, 조직민첩성-경영성과의 관계를 주로 검증하였으나, 본 논문에서는 두 개의 독립변수를 종속변수와 연결함으로써 기존 연구의 범위를 확장하였다.

셋째, 조직민첩성과 관련된 기존연구는 중소기업대상이나 IT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주된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본 논문에서는 금융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여 기존 연구의 범위를 확장하였다.

본 연구의 실무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금융기관의 경제적가치는 사회적자본과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으나, 사회적가치는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금융의 사회적가치가 경제적가치에 비해 다소 가볍게 여겨지는 듯한 느낌을 받는데, 많은 금융기관들이 사회공헌활동등 CSV활동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의 인식이 부족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금융기관에서도 사회적가치창출을 위해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 전략적으로 홍보하고 알림으로써 금융의 사회적 기능을 더 강화할 필요성이 있으며, 다른산업의 많은 기업들이 CSV를 통해 경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교훈삼아, 금융기관에서도 이를 경영성과와 연결시킬 수 있도록 전략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사회적가치는 구조적자본을 통해서 재무성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금융기관이 성과를 내고 있지 않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금융기관이 관계 맺고 있는 전략적 파트너와의 협업을 통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다. 4차산업혁명의 화두가 초연결 사회(hyper-connected society)라는 것을 상기할 때, 금융 분야 또한 네트워크를 통한 연결이 중요해지는 시대로 나아가고 있음을 인지하고 구조적자본 역량을 강화해야만 한다. 예를들어 최근 핀테크 기술을 이용한 다양한 금융 비즈니스 모델이 개발되고 있는데, 비즈니스 파트너와 협업을 통한 금융분야의 서비스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더욱 치열해져 가는 금융시장에서의 경쟁 우위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금융시장에서 보다 높은 경영성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셋째, 조직민첩성이 경영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조직민첩성이 좋은 금융기관이 경영성과에도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고객변화에 신속하게 반응하고, 더 좋은 서비스를 위해 조직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며, 경쟁사의 신상품보다 뛰어난 제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조직을 민첩하게 운영하기란 쉬운 일은 아니다. 특히나 조직이 방대하거나 대형화될수록 더 어려워진다. 따라서 민첩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의사결정의 단계를 줄이고, 조직 체계를 슬림화하여 조직이 탄력성을 가지고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경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시사점에도 불구하고 몇가지 한계점을 가진다. 첫째, 공유가치창출에는 경제적가치, 사회적가치 뿐만 아니라, 문화적가치라는 하위 개념도 있으며, 사회적자본에는 구조적자본과 관계적자본 이외에도 인지적자본도 포함이 된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각 변수의 하위 개념들을 추가하여 보완적 연구를 진행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조직민첩성은 독립변수로써 종속변수와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살펴 보았으나, 향후 사회적자본과 관계를 분석하여 어떤 영향관계가 있는지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금융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본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이 73.9%로 집중되어 있어 표본의 지역적 특성 및 일반화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으며, 표본의 선정에 있어 무작위 추출법이 아닌 임의표본 추출법을 사용하여 표본의 개별적 특성으로 인한 오류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연구표본을 대상으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1] M. E. Porter and M. R. Kramer, “The Big Idea: Creating Shared Value. How to reinvent capitalism—and unleash a wave of innovation and growth,” Harvard Business Review, Vol.89, No.1-2, 2011.

[2] 신정근, “국내외 사회적 금융 동향 및 시사점,” 산은조

사월보, 제2권, 제747호, pp.23-40, 2018.

[3] 권한섭, 박종원,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이 회계정보의 질에 미치는 영향-금융업을 중심으로," 세무회계연구, 제50권, pp.193-211, 2016.

[4] 배수현, "금융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 전산회계연구, 제18권, 제1호, pp.113-129, 2020.

[5] D. W. Arner, J. Barberis, and R. P. Buckley, "The evolution of Fintech: A new post-crisis paradigm," Geo.J.Int'L L., Vol.47, p.1271, 2015.

[6] I. Lee and Y. J. Shin, "Fintech: Ecosystem, business models, investment decisions, and challenges," Business Horizons, Vol.61, No.1, pp.35-46, 2018.

[7] 최진용, 김길선, 김미리, "핀테크 혁신의 이해를 위한 유형 분류: 가치를 중심으로," 경영학연구, 제48권, 제5호, pp.1303-1329, 2019.

[8] R. Ramasesh, S. Kulkarni, and M. Jayakumar, "Agility in manufacturing systems: an exploratory modeling framework and simulation," Integrated Manufacturing Systems, Vol.12, No.7, pp.534-548, 2001.

[9] 권영철, "공유가치창출 (CSV) 을 위한 조직동적역량과 이론적 배경에 관한 연구," 로고스경영연구, 제14권, 제4호, pp.57-74, 2016.

[10] 조동성, "자본주의 5.0 시대의 경제민주화," 전문경영인연구, 제15권, 제3호, pp.23-47, 2012.

[11] 박광오, 장활식, 정대현, "공급사슬 내의 파워유형이 정보역량에 미치는 영향: CSV 가치창출 관점," 정보시스템연구, 제27권, 제3호, pp.1-24, 2018.

[12] 원종하, 정대현, "기업의 공유가치창출 활동이 비재무적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경영연구, 제34권, pp.161-194, 2019.

[13] 황윤환, 길기순, 서영욱, "통신기업의 공유가치창출 (CSV) 이 사회적 거리와 브랜드 이미지를 통해 소비자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기업경영연구 (구 동림경영연구), 제87권, pp.81-99, 2019.

[14] 천혜정, 김시월, 이동일, 이지현, "공유가치창출을 위한 기업의 역할 변화와 소비자 참여," 소비자학연구, 제25권, 제3호, pp.1-19, 2014.

[15] 김성규, "기업의 글로벌 CSR 현황과 공유가치창출 (CSV)," 국제개발협력, 제9권, 제1호, pp.11-30, 2014.

[16] 안소영, 한진수, "호텔기업 공유가치창출 (CSV) 이 기업이미지, 신뢰도 및 고객충성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관광연구저널, 제30권, 제11호, pp.135-149, 2016.

[17] G. Lenssen, L. Van Wassenhove, S. Pickard, J. Lenssen, H. Spitzeck, and S. Chapman, "Creating shared value as a differentiation strategy-the example of BASF in Brazil," Corporate Governance: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Business in Society, 2012.

[18] 이두희, 고동수, 김동수, *공유가치창출 (CSV) 을 통한 지역산업의 지속가능한 경쟁력 강화방안*, 산업연구원 연구보고서, 2013.

[19] 문신희, 김정희,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공유가치 창출의 인지적/감정적 신뢰와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 대형할인점을 중심으로," 유통경영학회지, 제19권, 제3호, pp.37-49, 2016.

[20] 박노윤, 김종배, "조직관리관점에서 살펴본 유한킴벌리의 CSV 활동 특성," 윤리경영연구, 제18권, 제2호, pp.57-90, 2018.

[21] 곽기영, 홍문경, "정보기술역량과 조직학습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조직민첩성의 역할을 중심으로," 경영학연구, 제40권, 제4호, pp.1075-1108, 2011.

[22] S. L. Goldman, R. N. Nagel, and K. Preiss, *Agile competitors and virtual organizations: strategies for enriching the customer*, Van Nostrand Reinhold New York, 1995.

[23] H. Sharifi and Z. Zhang, "Agile manufacturing in practice-Application of a methodology," International Journal of Operations & Production Management, Vol.21, No.5/6, pp.772-794, 2001.

[24] R. Dove, "Knowledge management, response ability, and the agile enterprise," Journal of Knowledge Management, Vol.3, No.1, pp.18-35 1999.

[25] P. T. Kidd, "Agile Manufacturing: Forging New Frontiers Addison-Wesley," *Reading, MA*, 1994.

[26] E. Overby, A. Bharadwaj, and V. Sambamurthy, "Enterprise agility and the enabling role of information technology," European Journal of Information Systems,

Vol.15, No.2, pp.120-131, 2006.

[27] V. Sambamurthy, A. Bharadwaj, and V. Grover, "Shaping agility through digital options: Reconceptualizing the role of information technology in contemporary firms," MIS Quarterly, Vol.27, No.2, pp.237-263, 2003.

[28] J. Nahapiet and S. Ghoshal, "Social capital, intellectual capital, and the organizational advantage,"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Vol.23, No.2, pp.242-266, 1998.

[29] R. Putnam, "The prosperous community: Social capital and public life," The American Prospect, Vol.13, No.Spring), Vol.4, Available online: http://www.prospect.org/print/vol/13 (accessed 7 April 2003), 1993.

[30] F. Fukuyama, *Trust : The social virtues and the creation of prosperity*, Free press New York, 1995.

[31] 박서정, 곽선화, 이정봉, "제도적 동형화를 통한 사회적 협업의 정당성이 공공기관의 협업지속의도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기업연구, 제13권, 제1호, pp.3-67, 2020.

[32] 박찬권, "거래진정성과 시장지향성, 사회적 자본, 상생협력 SCM, 공급사슬성과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 고객만족경영연구, 제19권, 제3호, pp.81-102, 2017.

[33] A. G. Downe, S. Loke, and M. Sambasivan, "Relational capital and SME collaborative strategy in the Malaysian service industry," International Journal of Services, Economics and Management, Vol.4, No.2, pp.145-166, 2012.

[34] A. C. Inkpen and E. W. Tsang, "Social capital, networks, and knowledge transfer,"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Vol.30, No.1, pp.146-165, 2005.

[35] W. Tsai and S. Ghoshal, "Social capital and value creation: The role of intrafirm networks,"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Vol.41, No.4, pp.464-476, 1998.

[36] V. H. Villena, E. Revilla, and T. Y. Choi, "The dark side of buyer-supplier relationships: A social capital perspective," Journal of Operations Management, Vol.29, No.6, pp.561-576, 2011.

[37] 구정대, 이성호, "호텔기업의 서비스생산성이 경쟁우위와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관광연구, 제21권, 제3호, pp.113-127, 2006.

[38] 고세훈, 유왕진, 이윤보, "중소벤처기업의 경쟁전략과 경영성과 간의 구조적 관계에 관한 실증연구," 生産性論集, 제27권, 제1호, pp.225-260, 2013.

[39] 한경수, "1 인 창조기업에서 경영자특성요인과 정부지원정책요인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글로벌경영학회지, 제10권, pp.265-291, 2013.

[40] 백혜선, 조인석, "경영자의 특성과 환경 특성이 농업경영체 경영 성과에 미치는 영향," 경영교육연구, 제34권, pp.145-182, 2019.

[41] 박정호, *한국수출기업의 특허 및 기술혁신 역량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7.

[42] 이준영, 한미정, "스타트업 기업의 사내커뮤니케이션과 사회적 자본이 경영성과 인식에 미치는 영향력 고찰: 사회적 자본의 매개적 역할을 중심으로," 한국광고홍보학보, 제22권, 제2호, pp.76-114, 2020.

[43] 정대용, 유봉호, "기업가지향성이 주식투자행위와 투자성과에 미치는 영향," 한국창업학회지, 제3권, pp.1-25, 2008.

[44] R. R. Fullerton and W. F. Wempe, "Lean manufacturing, non-financial performance measures, and financial performance," International Journal of Operations & Production Management, Vol.29, No.3, pp.214-240, 2009.

[45] S. Sen and J. Cowley, "The relevance of stakeholder theory and social capital theory in the context of CSR in SMEs: An Australian perspective," Journal of Business Ethics, Vol.118, No.2, pp.413-427, 2013.

[46] 이기훈, 이의영, "사회책임경영 (CSR) 의 역사적 고찰과 기업의 대응전략," 창조와 혁신, 제4권, 제2호, pp.87-117, 2011.

[47] 주재훈, 신민석, 엄태인, "기업 경쟁력의 새로운 원천으로서 비즈니스 생태계와 사회적 자본의 역할," 한국경영정보학회 학술대회, pp.681-694, 2014.

[48] 윤태환, "전시컨벤션센터의 공유가치창출 (CSV) 이

MICE 산업의 사회적 자본 형성과 개별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 BEXCO 의 사례를 통해," 관광레저연구, 제30권, 제2호, pp.307-325, 2018.

[49] M. E. Porter and M. R. Kramer, "The link between competitive advantage an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Harvard Business Review, Vol.84, No.12, pp.78-92, 2006.

[50] H. Katayama and D. Bennett, "Agility, adaptability and leanness: A comparison of concepts and a study of practice," International Journal of Production Economics, Vol.60, pp.43-51, 1999.

[51] G. S. Day, "Managing the market learning process," Journal of Business &Industrial Marketing, Vol.17, No.4, pp.240-252, 2002.

[52] T. Li, J. Nicholls, and S. Roslow, "The relationships between market-driven learning and new product success in export markets," International Marketing Review, Vol.16, No.6, pp.476-503, 1999.

[53] M. Nastanski, "The value of active scanning to senior executives," Journal of Management Development, Vol.23, No.5, pp.426-436, 2004.

[54] S. P. Bradley and R. L. Nolan, *Sense and respond : Capturing value in the network era*, Harvard Business School Press, 1998.

[55] 김정욱, 박정훈, 남기찬, 박수용, 김병욱, "실시간 기업구현을 위한 비즈니스 민첩성의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적 연구," 한국경영과학회지, 제30권, 제4호, pp.83-97, 2005.

[56] 이용수, 안명옥, 김종근, *우정사업의 신사업 추진을 위한 조직민첩성 진단*,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5.

[57] 채주석, 김찬중, "전략적 인적자원관리가 조직역량을 통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인적자원관리연구, 제26권, 제1호, pp.143-174, 2019.

[58] J. Nahapiet and S. Ghoshal, "Social capital, intellectual capital, and the organizational advantage,"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Vol.23, No.2, pp.242-266, 1998.

[59] P. S. Adler and S. W. Kwon, "Social Capital: Prospects for a New Concept,"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Vol.27, No.1, 2002.

[60] 이양현, 심상규, "학술연구: 중소기업의 성장단계 판별모형에 관한 연구," 중소기업연구, 제29권, 제2호, pp.23-39, 2007.

[61] 류길호, 이선규, "기술혁신역량과 사회적 자본이 비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수도권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융합정보논문지 (구 중소기업융합학회논문지), 제9권, 제11호, pp.92-102, 2019.

[62] 안성수, 김석용, "공공조직의 사회적 자본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조직구조의 조절효과 중심으로," 한국자치행정학보, 제32권, 제3호, pp.69-90, 2018.

[63] 오재욱, "사회적 자본의 강도가 혁신성과와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 한국산업경영학회 발표논문집, 제2017권, pp.126-132, 2017.

[64] Y. Lu and K.(Ram) Ramamurthy, "Understanding the link between information technology capability and organizational agility: An empirical examination," MIS Quarterly, Vol.35, No.4, pp.931-954, 2011.

[65] P. P. Tallon and A. Pinsonneault, "Competing perspectives on the link between strategic information technology alignment and organizational agility: insights from a mediation model," Mis Quarterly, Vol.35, No.2, pp.463-486, 2011.

[66] P. M. García-Villaverde, G. Parra-Requena, and F. X. Molina-Morales, "Structural social capital and knowledge acquisition: implications of cluster membership," Entrepreneurship & Regional Development, Vol.30, No.5-6, pp.530-561, 2018.

[67] P. Kale, H. Singh, and H. Perlmutter, "Learning and protection of proprietary assets in strategic alliances: Building relational capital,"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Vol.21, No.3, pp.217-237, 2000.

[68] 서정록, 손성진, 김강, "BSC 성공요인과 성과측정지표 특성의 적합도가 비재무성과와 재무성과에 미치는 효과," 회계와정책연구, 제14권, 제3호, pp.53-82, 2009.

[69] R. S. Kaplan and D. P. Norton, "The balanced scorecard: measures that drive performance," Harvard Business Review, Vol.83, No.7, p.172, 2005.

[70] V. Govindarajan and A. K. Gupta, *Linking*

control systems to business unit strategy: impact on performance, Springer, pp.646-668, 1985.

[71] D. Eberle, G. Berens, and T. Li, "The impact of interactive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ommunication on corporate reputation," Journal of Business Ethics, Vol.118, No.4, pp.731-746, 2013.

[72] 김근아, 김상현, "기업 내적 IT 자원이 기업 민첩성과 성과에 미치는 영향: 관리적 IT 능력과 경영진 존재의 조절효과," Information Systems Review, 제15권, 제3호, pp.39-69, 2013.

저 자 소 개

김 상 철(Sang Chul Kim) 정회원

- 2019년 2월 : 충남대학교 경영대학원(경영학석사)
- 2019년 3월 ~ 현재 : 대전대학교 융합컨설팅학과 박사과정 재학

〈관심분야〉 : CSV, 사회적자본, 인사조직, 경영성과

서 영 욱(Young Wook Seo) 정회원

- 2000년 8월 :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원(경영학석사)
- 2009년 2월 :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경영학박사)
- 2015년 3월 ~ 현재 : 대전대학교 융합컨설팅학과 교수

〈관심분야〉 : 경영, IT컨설팅, 지식경영, 소프트웨어품질